

5/31(화) 느헤미야 1

느헤미야 1:1-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와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에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귀환이 이루어진 과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적 배경

남유다 백성들은 B.C. 537-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당시 유다인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이들의 주도로 B.C. 536년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던 방해꾼에 의해 성전재건은 방해를 받고 오랫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 후 B.C. 520년경부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유다인들은 다시 성전재건을 시작합니다. 또다른 방해가 있었지만 성전은 결국 B.C. 516년에 완성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지 70년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한편 에스라를 중심으로 B.C. 458년에 제 2차 포로귀환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1차와 2차 포로 귀환이 있던 그 사이에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던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시기에 페르시아의 아하수어로 왕이 통치했고(B.C. 458-468)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개가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됨으로써 유다인들은 페르시아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예 10:3, “유대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어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다음으로 3차 포로귀환이 기록된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제 3차 포로귀환은 B.C. 444년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아닥사스다왕 20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는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에스라와 더불어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헬라어 70인역에서 분리되어서 본서의 제목이 느헤미야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본서가 에스라에 의해 기록된 말씀으로 보기도 하지만 느헤미야서에 일인칭 화법이 사용된 것을 볼 때 이는 느헤미야가 저자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의 과정과 더불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사건,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한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개혁과 언약 갱신에 따른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소식

본문 1절은 느헤미야가 이 책의 저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미라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당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말은 관리로서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느 2:1, “**아닥사드사 왕 제이십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당시 ‘왕의 술 말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일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당시 왕의 깊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중요한 요직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본국인 이스라엘 땅에서 페르시아에 이르러 고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소상하게 전해주게 됩니다(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제 1차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평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느헤미야가 전해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벽은 여전히 훼방꾼들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복구되지 못하고 파괴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깊은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수일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는 느헤미야가 높은 관직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이 세상과 선교지, 교회, 그리고 가정들이 전쟁과 다툼, 온갖 죄로 인해 무너지고 훼파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눈과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사 6: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마 9:37-38,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페르시아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국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훼파되고 그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끼며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헤미야를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으로 바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이 땅을 위한 기도:** 전세계의 전쟁과 테러, 독재 그리고 여러가지 재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국가와 민족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적 진리와 점점 멀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드-베다니 1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 기관을 위한 기도:** Chasefu Theological College(Zambia)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